



팩트체크

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취업

Q.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? 취업 때문에 걱정됩니다.



진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. 오히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실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더욱 철저히 보호됩니다. 따라서,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으로 인해 취업 불이익을 받는다고 염려하신다면 **이는 사실이 아닙니다.**



Q. 취업할 회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?



그렇지 않습니다. 의료법에 따라 그 누구도 지원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는데, 이는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이나 공무원 임용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채용 시험에 합격 후 신체검사를 할 때도 과거 진료기록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,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의사가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


Q. 신체검사 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?



채용 시점에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신체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판단합니다. **병원 진료기록이 전달되어 판정되는 것이 아니며, 채용 시점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**



Q.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이력 때문에 취직이나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나요?



저에 경험으로 지난 20여 년간 병원에 찾아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수천 명의 환자 중 취직이나 면허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진료 이력이 조회되어 합격이 취소된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오히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미루다 정신건강이 나빠져 공부를 제대로 못해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는 보게 됩니다. **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 자체로 취직에 지장을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**



[인용] 1.하민지 기자. Deepr <http://deepr.kr/203> 2.김성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. KBC 광주 방송 '꿈지락'. 2017년 10월 31일.